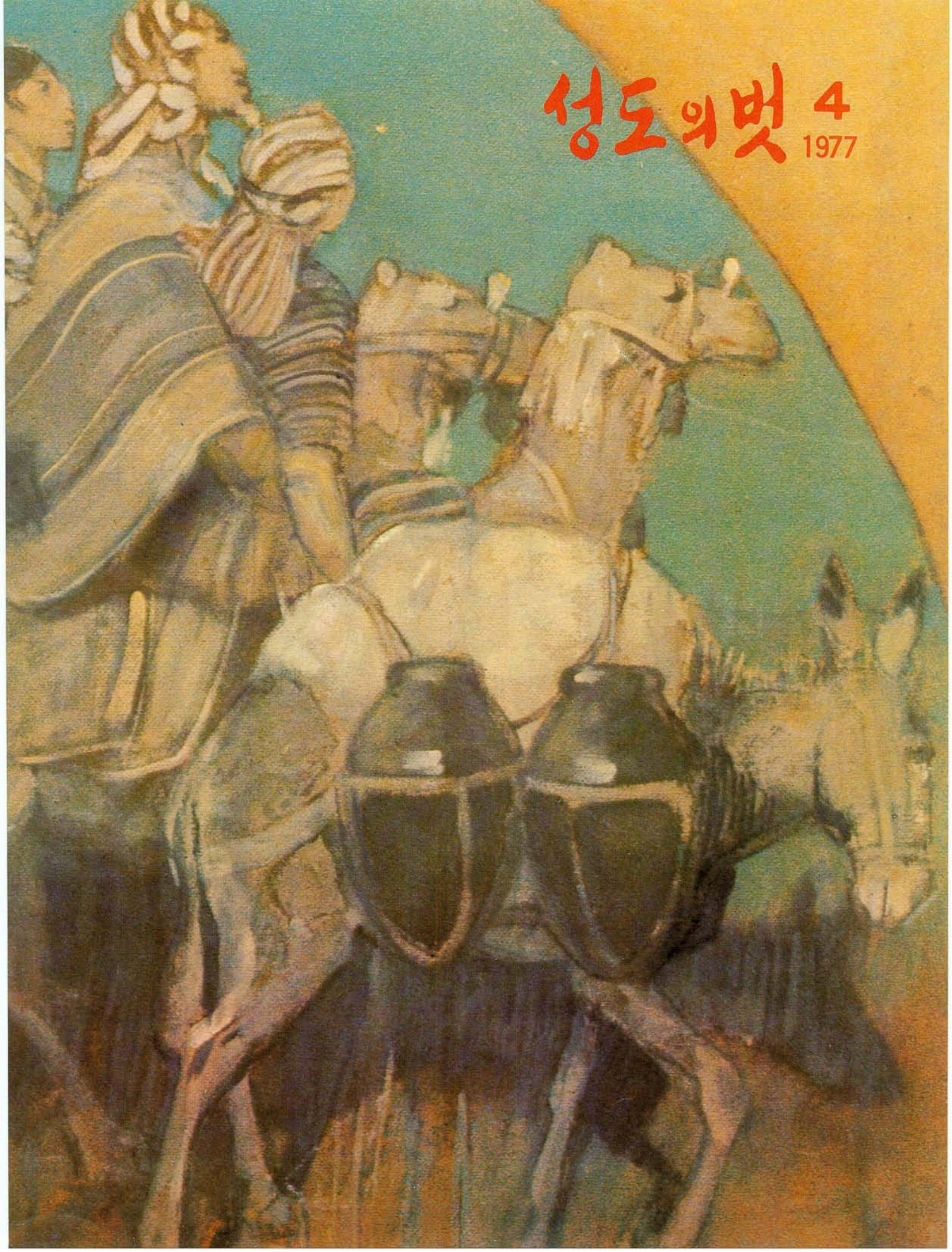


성도의 빛 4
1977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앨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타이플리
리글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파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행스
제임스 에이 칼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7년 4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3권 제4호
통권 141호
발행인 겸 편집인:
유진 피 킬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차례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1

조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이만 디 플랫폼 3

고대의 십자가 처형 리차드 로이드 앤더슨..... 6

예언자요 축복사요 가장인 리하이 마샬 알 크레이그 8

모든 일에 다 능통한 니파이 앨런 이 버진 10

분홍색 부활절 드레스 도라 디 프렉크 13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16

티셔츠를 입은 꼬마 선교사 18

심심풀이 20

“하나님의 사랑의 맛” 에어만 브락크 21

예수 그리스도—우리의 은사와 유산 에즈라 태프트 벤슨 22

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데오이 맥킨 27

간증의 힘 마크 이 피터슨 29

지역 지도자 메시지 장 재 환 30

교회 및 지역 소식 31

© 1977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
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
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
/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우리는 실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신의 빛, 신권, 권능, 약속, 신전 성약, 가족 그리고 진리가 곧 그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가장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개인 혹은 가족이 스스로를 평가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 우리의 창조주께 경건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 점에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이나 대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제멋대로 통로를 오가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즐거나 현관에 있는 성인들을 봅니다.

또 가족들이 늦게 참석하거나 시끄럽게 걸어 들어와 의자에 앉거나 모임이 끝난 후 예배당에 모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구도자, 친구 그리고 아직 신앙이 강하지 못하거나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갖는 모임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크게 감동을 받는 선교 사업의 훌륭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을 느끼기 위하여 먼저 이들 가운데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까?

말일성도의 생활에서 경건이란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경건의 의미와 중요성

경건이란 말은 “신성한 것에 대해 공경과 사랑과 두려움을 갖는 태도 및 감정”으로 정의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설명하면 경건의 의미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입니다.

교회의 많은 지도자 역시 경건을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자질 중 하나라고 했으며, 그것에는 하나님과 그의 의와 그의 높은 수양에 대한 참된 신앙과 생활 가운데서 보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도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

주님께서는 현대 계시에서 우리에게 경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경건이 해의 영광에 가려진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 혹은 특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32년 2월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어진 “시현”으로 알려진 교리와 성약 76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같이 해의 영광을 보니, 모든 것이 뛰어났고 그곳은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사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곳이었다.

“그 보좌 앞에 모든 자가 겸손하고 경건하게 경배하며,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더라.

“그 면전에 거하는 자는 장자의 교회 회원이니, 자기에게 보이는대로 보고 알려지는 대로 알며 아버지의 충만 하심과 영광을 받은 자니라.

“또 아버지께서는 저들의 권능과 힘과 지배력을 동등하게 하시느니라.” (교리와 성약 76 : 92~95)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건

현대의 다른 계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까지 경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되며 심지어는 그것을 자주 사용하는 것까지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성 107 : 2~4)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 중 한 계명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20 : 7)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경건히 받드는 것은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의 하나입니다.

주님의 집에 대한 경건

주님께서서는 현대 계시에서 다른 중요한 부분, 즉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경건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커틀랜드 신전 헌납 기도로서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계시에서, 이 신전은 주님께 바쳐진 모든 다른 신전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경건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교성 109 : 13, 16~21)

교회의 거룩한 신전에 관한 모든 말 씀은 문자 그대로 그것이 예배당이든 혹은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이든, 말일성도의 어떤 가정이든 모두 “주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에는 행복이 따른다

복음의 다른 원리와 마찬가지로 경건은 기쁨을 느끼도록 해 줍니다.

경건은 음울한 것이 아니며 일요일에만 지키는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경건은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뿐만 아니라 행복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덕성입니다. 사실상 말일성도는 이 지상에서 가장 경건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과 가정

그렇다면 경건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어떻게 발전시켜야 합니까? 가정은 하나님과 같은 모든 덕성을 기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뿐만 아니라 경건을 배우는 데도 중요한 장소

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린 자녀가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늘에 제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은 바로 개인 혹은 가족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어린이가 가정에서 배우는 태도는 교회의 집회에서 그들이 갖는 자세를 결정짓습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배운 어린이는 곧 예배를 드리는 동안 기도를 할 때는 조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밤을 정기적으로 가질 때 자녀들은 또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배우고 모두가 가장 예의 바르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특별히 음악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는 가정에서도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는 가정에서 부모가 쉬운 찬송가를 가르쳐 주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는 성찬식이나 다른 모임에서 열심히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경건

부모는 또한 자녀와 함께 주일학교에 참석해야 합니다.

부모는 모임에 대한 준비가 가족에게 유쾌한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야 자녀를 불러 옷을 입히고 급히 교회로 가는 것은 경건을 해칩니다.

가족이 이러한 습관에 빠지게 되면 모임에 예사로 지각을 하게 되며 언짢은 말을 하고 기분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며 자녀들은 자주 예배 도중 당황하거나 불안해 합니다.

가족이 모임 시간 훨씬 전에 준비를 하여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에 가서 함께 조용히 앉아 세상의 염려를 그들 마음에서 몰아내며 전주곡을 듣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경건한 것입니까!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는 때로 그들에게 모임을 이해시키고 소란을 피우지 않게 하느라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끈기와 확

신을 갖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만이 이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됩니다. 교회에서 자녀를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는 젊은 부모가 있다면 와드 내의 경험이 있는 다른 부부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자주 모임 전후에 모여 인사를 나눕니다. 불경건은 때로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과 안식일은 방문하고, 우정을 나누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편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부모는 가족에게 현관이나 예배당 밖에서 모임 시간을 전후하여 사람을 만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부모는 영적인 것을 토론하고 음악을 듣거나 또는 자녀와 함께 모임에서 배운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여 예배의 분위기를 가정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우리는 이제까지 경건의 중요성에 관해 토론하였으며 몇 가지 그 의미를 음미하였으며 가정과 교회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도 몇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 지도자와 가족이 경건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사람들의 행동에서 참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온 교회가 경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격려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된 경건은 중요한 덕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 거센 영향 때문에 제 빨리 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을 행하려는 힘은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수백만 회원이 함께 경건한 태도로 봉사할 때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영향으로 감화를 받을 사람이 또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한 백성이 될 때 우리 가정에 들어 차게 될 위대한 영적인 힘을 가히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보다 경건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조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라이만 디 플랫트

가족을 선교 사업, 계보 사업, 복지 사업, 가정 교육에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가정 이 이를 시작하는 데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

가장 되시는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린 적은 없어.”

“이웃집 사람들이 이사를 온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어젠 또 이사를 갔지. 우린 그들을 만나 보려 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은 가져보지도 못했어.”

“아들이 선교사로 나갈 나이가 되어 가는데 아직 준비된 돈이 없으니.”

“정원에 채소를 심지도 않았거든.”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늘 들려 주시는데, 할머니의 생전에 그걸 기록해 놓고 싶은데.”

“우리 중에 하나가 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전 가족이 신체 단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볼까?”

“둘째 딸 아이는 교회에 통 관심이 없어. 웬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될텐데.”

“큰 아이가 내년 봄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 후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군. 직장을 얻을는지 진학을 할지도 결정을 못했으니.”

“애들 자라는걸 보면 놀랍단말야. 그런데 경전 공부 전혀 도와시거든.”

“계보 사업이 중요한 건 알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작년이나 금년이나 진척이 없어.”

“난 가장으로서 신권을 잘 행사하지 못하고 있나 봐. 정말 그래. 무슨 일이든 정리된 게 하나도 없고 주위가 항상 산만하거든.”

이상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사실로 들려옵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가정 중의 한 분이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때때로 일손을 멈추고는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으로서 여러분에게 걸고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이 행한 일과 가족이 이룬 발전을 평가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도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의 가장으로서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지 믿음의 문제나 옳은 일을 하겠다는 소망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듯이 이것은 가족의 단합이 문제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의 예를 봅시다. 아담은 죽기 3년 전에 그의 의로운 자녀를 아담—온다이—아만 계곡에 불러 모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족 모임에 오셔서 모든 가정의 심금을 울려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머리로 세웠으니……너는 영원히 저들의 왕자가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107:55)

의로운 생활로 일관해 온 아담은 그 성스러운 모임에 참석한 자녀들에게 구원을 위한 복음의 원리를 가르쳤고 영원히 존재하는 신권의 반차에 따라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그들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성신으로 감동되어” 오늘날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태초로부터 있었던 바로 이 신권은 세상의 마지막에도 있으리라.”(모세서 6:7)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가족을 보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 과연 우리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고 있나 자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족이 일상 생활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보다 높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신권의 반차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세상적인 복리, 영적, 사회적, 지적 성숙도, 오락 활동, 선교 사업, 계보 및 신전 사업이 포함됩니다. 바꿔 말해서 이상적인 가정이란 하나님 왕국의 형태대로 이루어지고, 가족이 경험을 쌓고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추구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융통성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한 가정은 가족이 서로 사귀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생의 모든 면에서 발전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게 됩니다.

막 결혼을 한 신혼 부부나 많은 경험을 쌓은 연로

한 부부 등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가정은 모두 여러 가지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기도하는 자세로 갖출 수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는데, 이는 자녀가 합당한 훈련, 존경심, 헌신, 신앙, 지식과 겸손을 배우며 성장하려면 굳은 기초가 놓이고 훌륭한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되는 신권 프로그램은 가족에게 활동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복지 사업, 선교 사업, 계보 활동이 있습니다.

복지 사업

복지에는 모든 가족의 영적, 신체적, 정서적 복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가정이 자녀와 갖는 개인 접견, 가족 회의, 가정의 밤, 신체 단련을 위해 합당하게 계획된 프로그램, 가정 비축, 정원 가꾸기, 농장 계획, 가족의 기술, 개발 계획, 재정 관리 등도 포함됩니다.

1975년 4월 5일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은 대회 복지 사업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말할 때 현명하게 준비함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즉 눈에 보이고 예측할 수 있으며 거의 상상할 수 있는 필요 사항에 대하여 언급해야 합니다.”

선교사업

가족은 복음 선교사와 그들을 돕는 교회의 다른 조직과 함께 교회의 선교 사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선교 활동으로는 선교사 기금 적립, 선교사 준비, 와드나 가족이 하는 선교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선교사로 나가게 돕는 일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족이 할 수 있는 책임입니다. 가장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소년은 선교사 기금을 모을 은행 구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그들이 언제쯤 선교사로 나가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가족과 우정 증진 관계를 맺는 것도 교회에 속한 각 가정의 책임입니다. 우정 증진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른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며, 다른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야말로 축복받은 자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계보 사업

계보 활동은 자녀에게 가족의 유대와 유산을 감사할 줄 알도록 훈련시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데 경전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가족의 기억의 책을 작성하도록 하고, 대가족의 일원이 됩

가정 복지에는 자녀의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지도가 포함됩니다.



비회원 가족과 우정 관계를 맺을 때는 여러분의 가정에 깃든 행복과 사랑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보 탐구와 신전 사업 등에 참여하는 일이 모두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구별되는 한 가지 속성은 영원토록 기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세히 기억을 되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우선 순위와 성약마저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결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억해야 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결정, 경험, 계시, 설교, 의식에 관한 기록과 회원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 왕국의 기억

여러분은 매일 가족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책에 기록하거나 붙여두십시오.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가족을 돕고 싶다면 가족의 요구나 여러분이 이룬 발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의 책에 포함됩니다. 성스러운 가족 기록서를 만드는 이유는 가족이 승영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것으로는 복음의 원리, 성스러운 개인 경험 및 계시, 가족을 위해 집행된 의식, 혈통, 조상의 전기 등이 있습니다.

가정 교육

이상의 세 가지 강조점을 함께 묶어 주는 것은 가정 복음 교육을 포함한 가족의 가정입니다.

가장은 자신의 부모나 신권 정원회 지도자로부터 복지 사업, 선교 사업, 계보 사업에 관한 자기의 의무를 배웁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조목별로 정리한 기록부를 가지고 있어 항상 자신의 책임을 잊지 않아, 매일 자신의 발전상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한 면과 왕국의 교리에 관해 가족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정기적으로 가족을 방문하여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가족은 성령의 영향으로 급속히 성숙해 갑니다. 부부는 아담과 이브처럼 고귀한 세대의 머리가 되어 함께 의로움 안에서 성숙해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을 이루어 가는 방법입니다. 나중에는 이같이 조직된 가족은 더 크고 확장된 조직 안에 자녀들의 각 가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커집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가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란 영생과 구별이 되는 현세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세와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현세에서는 물론 영원토록 가족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은 지상 생활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내세에서도 지속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관계를 지속하며,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말일 성도 이외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업을 이루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조직인 가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조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유의 회복”, 1944년 11월 3일, 케이 에스 엘 라디오 방송 말씀)

확실히, 가정에서의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은 주님께서 주님의 집에 관해 말씀해 주신 것을 자기의 가정을 위한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리와 성약 88 : 119)

어떠한 가장이라도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 계획, 기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장과 가족에게 임할 축복은 노력을 들여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왕국의 프로그램을 소홀히 하고 생활하여 왔다면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을 조직하십시오. 왕국의 프로그램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말일에 주어진 복음의 일부입니다. *

라이만 더 플트랫 형제는 교회 계보과 교육 담당 전문가로, 페이슨 유타 이스트 스테이크, 스프링레이크 와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고대의 십자가 처형

리차드 로이드 앤더슨

최 근에 고고학자가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던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여호하난이란 사람의 두개골을 발굴해냈다. 그들은 이 두개골을 관찰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사복음서는 간결하게 그리스도의 처형을 다루었다. 옛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의 잔학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이를 상세히 다룰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십자가 처형의 잔학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독자는 당시에는 널리 인식되었으나 신약 성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이 처형을 고대의 문헌에서 찾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사복음서에서 다룬 십자가 처형과 고고학자들의 새로운 증거를 통해 우리는 구세주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이 흔하던 로마 점령 지역에 사셨다. 이러한 극단적인 처형은 유대인 역사가 조세퍼스(주후 37~100년, 유대인 역사가, “유대인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의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

기 위하여 로마가 쓴 방법이였다. 헤롯 대왕이 죽고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시리아 총독은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를 넘어 예루살렘에 진군해 와 이천여 명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다. (유대인 고대사, 17 : 295)

주후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행정관이었던 게시우스 플로터스는 예루살렘 시내에서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했고, 많은 시민을 잡아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달라고 명령을 내렸었다. (유대 전쟁사, 2 : 306) 이 전쟁은 주후 70년, 나중에 황제가 된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점령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그는 반항자들을 굶기었으며, 가난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요새에서 몰래 빠져 나와야 했다. 전형적인 로마의 공포 정략으로 매일 수백 명의 시민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다. (유대 전쟁사 5 : 449)

로마는 강도와 반항자들에 대한 엄벌책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하였던 것

이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오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모진 고통을 견디셨다. 고대의 역사가도 십자가 처형을 가장 무서운 것으로 말하고 있다. 시세로(주전 106~43년, 옛 로마 정치가, 문학가)도 그가 쓴 역사책에서 십자가 처형의 잔학성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노예를 처형하는 가장 잔인하고 잔학한 방법”이다. 조세퍼스도 가장 불쌍하고 처참한 죽음”(유대 전쟁사, 7 : 203)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의 힘든 희생을 “십자가를 지는 것”과 비교하셨다. (마 16 : 24 참조)

고대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복음서가 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나를 알 수 있다.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듯 신약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세주의 생애와 죽음에 관한 기사는 직접 목격한 자나 이들의 진술을 조사해 본 사람의 기사였다. 로마 총독의 판결에 따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다. 이러한 처형은 고대의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형장에 십자가의 수직대가 박혀 있고 죄인이 수평대를 지고 가게 되어 있었다. “십자가”로 번역되는 희랍어 Stauros는 말뚝을 뜻하며 이것은 십자가 전체나 그 일부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수에게 씌운 죄목은 다른 책자에도 나오고 있다.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입은 손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보여 주셨다. 의심 많던 도마는 예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볼 수 있었다. (요 20 : 25 참조) 죄인을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기사는 얼마든지 있으며, 조세퍼스도 로마 병정에 체포된후 겪은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자기의 친구 세 명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사령관인 타이터스에게 간청하여 그들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하였다. 타이터스는 그들을 내려 치료해 주도록 명했다. 그러나 세 명 중 두 명은 치료를 받는 도중 죽고 말았다. 이것은 못을 박기 전에 이들이

당한 못매와 체적의 고통과 상처가 어떤 것이었나를 말해 준다. 사람을 십자가에 달기만 했다면 이처럼 잔인한 결과는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발도 이처럼 못으로 박힌 것이다. 누가는 예수께서 상처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는 “내 손과 발”을 보라고 청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눅 24 : 39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1932년판 하바드 신학 리뷰지에 실린 기사는 “로마인이 행한 십자가 처형방법으로 반드시 발에 못을 박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3세기경 인물인 터틀리안(쿠인투스 터틀리안, 주후 160~230년, 라틴 교회 역원)의 기사를 읽어 보면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시편 22편 16절의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를 인용한 후 그는 “이것은 십자가 처형의 잔인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시온 반대문, 3 : 19)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약 성서에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물론경에서 밝히 나타내 주셨다.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라.”(니삼 11 : 14) 현대의 계시에서도 “내 손과 발의 못 자국”(교성 6 : 37)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한 첫번째의 고고학적 증거가 발에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1968년 여름에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고대 유골을 묻은 무덤과 납골당에서 시신을 해체하여 뼈를 다시 모아 저장한 돌상자가 발견된 사실이 1970년 이스라엘 유물 탐사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뼈단지를 분석한 브이 차페리스 교수는 이 무덤이 주후 1년부터 70년 사이 즉 기독교 시대를 전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해부학 교수인 엔 하스 박사는 십자가 처형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여호하난의 유골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는 여호하난의 두 발목뼈를 관통한 7인치 못을 찾아 낸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는 그 희생자가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처형되었다는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니파이삼서 11 : 14)

하스 박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예수와 동시대의 인물인 여호하난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발에 못이 박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다른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던져 주는데, 즉 첫째는 못이 손의 어느 부분에 박혔느냐 하는 것이다. 신약 성서는 예수의 손에 난 못자국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고대 회랍 문학에 나타난 hand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였지만 신약 성서 시대에 쓴 영어의 hand만큼은 정확한 개념이었다. 특히 신약 성서에 나타난 hand란 말이 팔의 아래 부분인지 특별한 용도가 있는 손목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또 다른 못이 있을 수 있을까? 하스 박사는 여호하난의 바른쪽 요골(팔을 뻗을 때 보이는 상박골)에 두 개의 상처가 나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첫번째 못을 박을때 생긴 상처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며 몸을 뒤틀 때 생긴 상처로 풀이했다. 이 못 자국은 못을 박기에 좋은 단단한 부분인 두 하박골 사이에 있었다. 이러한 증거와 신약 성서의 기록으로 우리는 손과 손목에 모두 못이 박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자의 체중이 손과 손목에 박은 못으로 지탱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라틴 신학자인 순교자 저스틴 머터(주후 100~165년, 라틴 교회 역원)는 십자가에 달린 자의 체중을 받쳐 주는 돌출 부분이 십자가 중앙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대화, 91 : 2) 회랍의 신학자인 이레니어스(주후 130~175년?, 회랍 교회 역원)는 “이 처진 의자에 못을 박힌 희생자가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단 반박, 2, 23, 4) 바꿔 말해서 못만으로는 체중을 지탱하지 못했

다. 중간에 달린 임시 의자가 이 역할을 한 것이다. 터틀리안은 이 물건을 “돌출 의자”라고 불렀다. (반방에, 1 : 12) 이것은 신약 성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들 초기의 학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 고안된 고대의 이러한 처형을 알고 있었다.

여호하난에 관한 마지막 증거는 신약 성서의 사실과 일치한다. 신약 성서는 세 사람의 십자가 처형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 노을이 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막을 내리고 있다. 병사들은 예수가 죽자 다른 두 도적에게 가서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로마인들이 늘 행하던 대로 그들의 다리를 꺾어 죽게 하였다. 여호하난도 똑같은 경우였으니, 하스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의 남은 정강이뼈가 대각선으로 부러져 있었다.

신약 성서에 언급된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이 잘 알려진 고대의 관습에 의해 입증되었다. 고고학자들이 신약 성서의 역사에 확증을 더해 준 것이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건대, 우리는 여러 가지의 기사를 통해 십자가 처형이 경우마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도 예수께서는 이들 다른 희생자들보다 먼저 죽은 것으로 보아도 그가 받은 고통이 더욱 혹독하고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십자가 처형을 공부한 것은 고대의 역사나 고고학을 연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이는 주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리처드 로이드 앤더슨 박사는 브리검 영대학 역사 및 고대 경전 담당 교수로, 현재 프로보 유타 샤론 이스트 스테이크, 플레전트 뷰 제1와드에 속해 있다.

예언자요 축복사요 가장인 리하이

마셜 알 크레이그



물 문경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시현을 보고 가 죽을 광야로 인도한 후 미대륙으로 건너간 리하이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그의 아들 니파이가 그 기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대탈출 계획에서 예언자요 축복사인 리하이가 담당할 놀라운 역할을 잇기 쉽다. 니파이는 자신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업”(니일 10:1)에 관한 자신의 기사를 써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문경 백성에 관한 방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게 한 일을 행한 리하이는 그늘 속에 감추어지고, 그의 인품은 니파이, 야팜, 기타 경전에 나오는 다른 인물보다도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리하이는 위대한 예언자였다. 주님이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겪은 경험은 다른 어느 예언자의 경험에 못지 않다. 그는 헌신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와 예언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결단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간절한 기도 끝에 리하이는 불기둥을 시현으로 보고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었다. 스바냐나 예레미야와도 같이 그는 그의 나라의 운명

을 예언하였고, 구약 성서의 많은 예언자들처럼 메시야의 오심을 예언하였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그를 배척하였다. 그는 생명의 위협도 받았으며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리하이는 전형적인 예언자 이상의 특성을 지닌 분이였다. 우리는 그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리하이는 우리가 그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이 광야에서 죽은 줄로만 생각한 새라이아가 그에게 “몽상에 잡힌 사람”이라고 불평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내가 환상의 사람인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현으로 보지 않았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다른 백성들과 같이 멸망될 것이라.”(니일 5:2,4)

꿈과 시현이 리하이의 생애를 지배하였다. 그는 시현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와 십이사도들을 보았다. (니일 1:6~14) 또 다른 예언을 통해 그는 바빌론의 속박과 메시아의 통치, 이방인への 복음 전도를 예언하였다. (니일 10:3~14) 광야로의 여행도 꿈에서 지시를 받았다. (니일 2:1~3) 또 다른 꿈에서 리하이는 그의 아들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레이밴의 옷쇠판을 가져오고, 후에는 이스마엘을 설득하여 그의 아들과 딸이 그의 일행에 가담하게 하라는 명을 받았다. (니일 3:2~4:7:1~2) 리하이는 꿈과 시현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는 생명의 나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던 바 바로 내가 시현을 본 것이라.”(니일 8:2) 그는 실로 “환상의 사람”이었다.

리하이는 구약 성서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예언자는 아니었다. 니파이는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진대 거대한 성 예루살렘이 멸망되리라고 예언하였으며”(니일 1:4)라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경전이 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로 “비웃음을 받았으며” “멸시를 당한” 예언자들이었다. (대하 36:15~16) 국가의 멸망을 예견해 보고 이를 경고한 예언자는 모두 하나같이 그 국민으로부터 무시당했던 것이다.

당시 주님의 대변자로 말을 한 많은 예언자들이 유대인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리하이는 주님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만을 의지했으며, 위험스럽고 중요한 일을 그만두고 더욱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행하려고 하였다. 그는 나라를 개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했다. 그는 주님을 섬길 의로운 백성을 세워야 했다.

리하이는 그의 가족을 항상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모든 부름은 그의 자녀와 그들 자녀에게로 집중

되었다. 그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았다. 그러던 그에게 갑자기 축복사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이 겹치게 되었다. 그가 레이벤의 옷쇠판을 구하려 아들을 보내도록 명령을 받은 것도 “후손”(니일 5:19)을 위해서였다.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이 여행에 가담하도록 부탁했을 때 그는 후일에 의로운 후손을 이루어 줄 어머니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니일 7:1~2) 말년에 시현을 통해 예루살렘이 멸망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도시가 멸망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슬퍼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그의 자녀에게 그들이 “모든 땅 중에서 으뜸이 되는 약속의 땅”(니이 1:5)에 살게 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가족에게는 예언자였다. 그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김을 만족해 하였다. (니이 1:14~15)

“환상의 사람”이란 말은 실질적이 못되는 사람으로 들린다. 몽상가란 결정, 힘, 용기를 요하는 일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리하이의 꿈은 백일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사에서 주님께 순종한 성실한 몇몇 자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다. 니파이는 자신이 아무리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해도 가족에 관한 계시는 리하이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주님께서는 밤에 리하이에게 “다음 날 광야로 길을 떠나라”(니일 16:9)고 명하셨다. 그들의 여정을 인도한 “신묘한 숨씨로 만들어진 둥근 공”(니일 16:10)이 리하이의 천막 앞에서 발견되었다. 니파이는 활이 부러졌을 때에도 이를 다시 만들어 부친께로 가서 어디로 가서 짐승을 잡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니일 16:23~26, 30~31) 주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니파이에게 명했지만 (니일 17:8) 리하이가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다. (니일 18:5)

리하이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아들 니파이의 지도력을 질투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한 아들이 주님의 뜻에 성실히 따르는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니파이는 아버지의 신임을 받았다. “나의 부친은 이미 노령에 이르셨고 아들들로 인하여 크게 근심하였던지라 마침내 병석에 누우시게 되었느니라. 나의 형제들이……하나님을 대할 날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니일 18:17~18) 그의 귀한 아들이 배를 지어 약속된 땅으로 나머지 여정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는 일이란 그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니파이가 바람을 멈추고, 폭풍우를 자게 했을 때 그는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지도자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니일 18:21~22) 리하이는 다른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다. “너희 아우에게 대항하지 말라. 저의 시현은 영화로웠으며 저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날로부터 계명을 지키는 자라……저는 너희를 다스릴 권세나 능력을 얻고자 함이 아니며 다만 하나

님의 영광과 너희들의 영원한 복지를 구하였느니라……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함께 하심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거늘, 저가 너희를 명함에 너희가 이를 복종해야 하리로다.”(니이 1:24~25, 27)

니파이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자 리하이는 죽을 때까지 축복사의 위치만을 지켰다. 가족 내에서의 분쟁과 다툼이 있었지만 리하이가 죽을 때까지 분열되지 않았다. (니이 4:12~13, 5:5)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리하이도 그의 자녀에게만 알려진 예언자였다. 그러나 그의 자녀를 통해 그는 수천 년 동안 만백성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의 자녀에게 준 다음과 같은 말씀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나,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나의 면전에서 멸절되리라.”(니이 1:20) 그는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마땅하니”(니이 2:11)라는 말로 기본되는 진보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원리를 인간의 타락에 적용시켰다.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던들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에벳 동산에 그대로 머물었으리니 ‘그와 이브는’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임에 무지한 상태에 머물어 비참함을 알지 못함에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함에 선을 또한 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나”(니이 2:22~23)

리하이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부와 권세와 재능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처음 시현을 받을 때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리하이는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여 왔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맛보았다. 그는 이렇게 간구하였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우고 위대하시나이다. 당신의 보좌는 하늘 높은 곳에 있어오며, 당신의 권세와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세상 만백성에게 두루 미치나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매 당신께로 나아 오는 자들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나이다.”(니일 1:14)

리하이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 생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였지만 외면적으로 성공해 보인 다른 사람보다 큰 보상을 받았다. 그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 “보라, 주님께서 나의 영육을 지옥에서 구속하사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고 영원토록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김을 보았느니라.”(니이 1:15) 그는 평생 동안 그에게 그러한 꿈을 준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영생으로 인도하며, 그곳에서 자기를 따라 온 가족과 함께 영원히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흰 열매 곧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니일 8:11, 13, 16, 11:21~22) *

마샬 알 크레이크 형제는 브리감 영 대학교 영문학 교수로 스프링빌유타 코롭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모든 일에 다 능통한 니파이

앨런 이 버긴

니파이는 남달리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대제국의 건설자였으며, 위대한 예언자였다. 예언자로서 그는 미래록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부친 리하이의 뒤를 이어 후일에 니파이인들이 이룩한 의로움의 기초를 닦았다. 새 제국의 통치자로서 그는 국민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아 그가 후자를 택했을 때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대 니파이, 삼대 니파이”(야 1:9~11)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였다. 그의 영향력이 매우 커 친여 년 동안 백성들은 스스로 니파이인이라고 불렀다. 물론은 자신을 니파이의 후예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물 1:5 참조)

에녹, 모세,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과 같이 니파이도 그의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였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으며, 경전 역사상 독특한 시대를 장식한 인물이 되었다. 에녹, 모세, 요셉 스미스처럼 그도 주님의 방문을 포함하여 놀라운 시현과 영적인 권세를 받았다. (니일 2:16; 니이 11:2~3)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처럼 그의 의로움이 불평하는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다. (창 37:18~20; 니일 7:16, 16:38; 니이 5:4 참조)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예언자와 같이 니파이는 용감하게 주님의 뜻을 이행하였으며, 지시받은 바를 실천해 나갔다.

인품

우리는 그의 영적인 성품은 잘 알고 있으나 종종 세계사에서도 찾기 드문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가진 자 곧 모든 일에 다 능통한 자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 그는 신대륙에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였고(니이 5:6, 10~11, 13)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척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부를만한 지적 능력, 기술, 통찰력과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그를 개척자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는 그런 명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참으로 그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와 견줄 만한 사람이었다. (니일 4:2; 17:23~47) 이러한 비유는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두



사람이 모두 위대한 영적인 능력을 지녔고, 시현을 보았으며, 자신은 물론 다른 문명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전을 썼기 때문이다.

니파이는 개인적으로 금속을 제련하여 틀을 만들고 금속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장인으로서의 기술을 심분 발휘하였다. (니일 19:1) 쇠로 만든 활이 부러지자 나무로 활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니일 16:23)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쇠를 녹여 금속 연장을 만들었고, 놀라운 기술로 배를 건조하였다. (니일 17:16; 18:1~4) 약속의 땅에서 그는 도시를 건설하였고, 솔로몬 신전을 본따 신전을 건립하였으며, 백성에게 진축하는 법과 목재, 쇠, 구리, 놋쇠, 철, 금, 은 및 기타 값진 금속들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니이 5:15~16)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레이벤의 검을 본따 무기를 만들었다. (니이 5:14) 사냥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게으른 백성이 된 레이맨인이 살던 땅에서 니파이는 근면과 노동의 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였다. (니이 5:17, 24) 이 모든 것을 그는 문명의 혜택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해냈다.

우리는 니파이의 초상화가 없지만 그가 진장하고 힘이 세며(니일 4:31), 유능한 사냥꾼(니일 16:31~32)으로 온갖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훈련된 무인이요, 백성의 보호자인 그는 백성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레이벤의 검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다. (야 1:10)

아벨의 의로움이 가인의 질투를 샀듯이 니파이의 의로움이 레이맨과 레뮤엘의 질투를 샀다.

니파이의 성실성, 부친의 사랑, 주님께 가까이 하는 태도는 레이맨과 레뮤엘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성품이었으므로 항상 그러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그들도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니일 3:39), 이스마엘의 아내와 아들 딸이 호소하였을 때 양식을 가책을 받아(니일 7:19~20), 리아호나에 쓰인 주님의 말씀에 의해(니일 16:27), 하나님의 음성과 권세로(니일 16:39; 17:54~55), 그리고 바다의 폭풍우로(니일 18:13~16) 스스로 겸손해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은 오래 가지 못했고 그들은 곧 자만심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기” 전보다도 더 크게 자주 반발하였다.

우리 모든 사람과도 같이 레이맨과 레뮤엘도 전 세계에서 발전시킨 성품을 타고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그들이 의로운 동생에게 보인 반응을 단순한 형제간의 질투로만 돌릴 수는 없다. 니파이도 정색을 하며 그들을 이렇게 꾸짖었다. “...너희는 마음에 살인을 범한지라, ...참으로 너희는 악을 행함에는 재빠르나 주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도다.”(니일 17:44~45) 갈등은 보다 큰 규모로 일어났다. 의와

불의의 대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니파이가 모든 인류에게 줄 교훈으로 이들의 반항적인 기사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영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니파이의 성품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또 다른 미덕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정신적으로 그의 형제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그는 전혀 원한을 갖지 않았다. 꾸짖는 다음에는 사랑과 권고가 뒤따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권유를 그들이 거부했을 때 니파이의 슬픔은 컸었다. “나는 저들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담백한 마음으로 용서하였으며”(니일 7:21) 또한 “낮으로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밤이면 저들로 인하여 나의 베개가 눈물로 적셔”(니이 33:3)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가장이나 아들이 되는 사람들은 니파이가 어린 나이에도 그의 부친께 철저히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사 역할과 관련해서 모든 예의와 범절을 지킨 사람이다. 그는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으며,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친의 지시를 들었다. 동시에 리하이도 아들의 위대성을 인식하고 존중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잊혀질 수 없는 부자 관계의 표준을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의 가정에서 사라져가는 사랑과 권위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영성

니파이가 타고난 남다른 영적 자질은 그가 받은 특별한 은사, 메시지, 권세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요셉스미스의 경우와 같이 그는 어린 시절에 영적인 지식을 얻었고, 자신의 운명을 예견해 볼 수 있었다. (니일 2:16~22 참조) 예언자 요셉처럼 그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심히 알고자 하여 주님께 간구하였으며, 이에 주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니일 2:16 참조)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니...너는 형들을 다스리는 자도 되며 저들의 교사가 되리라.”(니일 2:20, 22)고 말씀하셨다. 그는 레이벤의 놋쇠판을 받기 전에 성스러운 사명을 알고 있었다.

그후에도 그를 모든 세대에 걸쳐 위대한 예언자로 이끌어 준 계시와 은사가 뒤따랐다.

“나의 목소리가 높이 들리었던지라, 천사들이 내게 임하여 나를 다스려 축복하였으며,

“저들의 영의 날개로 나를 인도하사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감에,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나의 눈이 보았으나,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었으며, 이를 기록하지 말라 명함을 받았느니라.”(니파이어서 4:24~25)

신앙

이처럼 위대한 니파이의 신앙의 깊이를 측량하기

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의 신앙이 너무도 강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품의 특성들이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에 가리워질 정도였다. 대부분의 우리는 산꼭대기로 들리워진다가나 우리의 적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충격을 준다거나 2천 6백 년 앞 일을 내다본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으나 니파이의 신앙은 우리가 흔히 예언자의 부름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하늘 천사의 방문은 물론 위에서와 같은 기적을 행하기에 충분하였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니파이처럼 신앙을 행사할 수 있고 것처럼 겸손하면 그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 실로 니파이처럼 큰 문제를 가진 사람도 없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니파이의 간증

니파이는 완전한 신앙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신앙의 중심을 두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니파이의 간증보다 더 강력한 증거의 말씀은 찾기 어렵다. 나는 대학을 다니던 학생 시절에 구도자로써 이 간증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은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고 심지어 냉소를 지었으며 물문경을 읽어 가면서 논리상의 약점, 문법상의 모순을 찾으려고 했고, 비판적인 글귀를 적어 놓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니파이이서의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 니파이가 한 말의 힘에 압도되고 말았다. 이 말이 나의 머리를 깨우는 듯했고 전에 지녔던 조직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훌어버렸다. 이는 마치 니파이가 나에게 손가락을 내밀며 충격 기법으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과 같았다. 나는 그의 말을 다시 읽었고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훈하고 달콤한 느낌이 내게 임했으며, 나는 후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실제와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개를 한 후 나는 침례를 받았다. 침례 후 나는 그 간증의 말씀을 수백번 되풀이 해서 읽었다. 불과 몇 마디 안되는 간단한 말씀에서 주님을 위해 55년간 열심히 봉사한 한 노인의 참된 간증을 발견한 것이다.

한두 구절을 인용하여 전 장의 느낌을 나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나는 특별한 감화나 새로움을 맛보게 되는 경험을 갖도록 모든 독자에게 전 장을 읽도록 권고한다. 특별히 비회원과 레이맨인에게 이를 권고하는데, 이는 니파이가 시현을 통해 말일을 내다보고 이 글을 쓸 때 이들에 깊이 생각이 끌렸기 때문이다. 기록된 말씀에 영적인 힘이 깃든 문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들 수 있다. 나는 이 메시지에 의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크게 넓혔다고 생각한다.

그 구절들은 대학 시절 동안 내가 영적으로 클 수 있게 준비시켜 주었다. 니파이의 기록이 내 인생에 미친 느낌은 왜 이 기록이 쓰여지고 보존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만능인

니파이는 시현과 업적에 있어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는 초인파도 같은 이미지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자신의 약점을 비통해 한 다음 내용에서 그의 인간성을 맛볼 수 있다.

“오 나는 불쌍한 인간이로다. 나의 육신이 나를 슬프게 하며, 나의 죄가 나를 비탄케 하는도다. 이는 나를 십사리 뒤엎어 버리는 유혹과 죄 가운데 묻혀 있음이라.”(니파이이서 4: 17~18)

이러한 비통에 찬 글에서 니파이는 또 다른 자신을 나타내 보였으니, 이는 그의 말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약점을 지닌 자신을 인정해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솔직함은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나 니파이와 같은 완전함에 놀라게 되는 사람에게 큰 용기를 준다.

니파이는 우리도 극기를 통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과연 어떤 숨은 죄악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는 그와 같은 죄악은 없었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오히려 적들에게 품었던 분노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다 큰 힘을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라고 볼 수 있다. 극히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의로움으로 일관해 온 그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그에게는 심각했던 이와 같은 겸손에 찬 말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니파이는 거의 완전함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는 예언자요 교사요 통치자요 개척자였으며 건설자요 장인이요 지식인, 저술가, 시인, 군대 지도자, 제국의 아버지, 가정에서의 아들,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시대의 위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고자 노력한 만능인이었다.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씀을 후대에게 전한 사람도 없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한 유대인과 땅 끝에 있는 자들이여, 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임이라. 이 말 씬은 만민에게 선행을 가르치느니라.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함은 저 두려운 마지막 날에 ... 많은 자가 주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됨을 바램이니,

“...내가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큰 날이 이르기까지 이별을 고하노라.”(니파이이서 33: 10, 12~13) *

매 리 앤은 분홍색 천을 쓰다듬으며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자, 나도 이젠 열두 살이니 부활절 드레스를 입을 만하지!”

엄마는 난로의 오븐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빵 네 조각을 꺼내 식탁 위에 놓으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가 지어줄 옷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될거야. 앤아! 넌 참 오랜 동안 불평없이 잘 참았 다.”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분홍색 부활절 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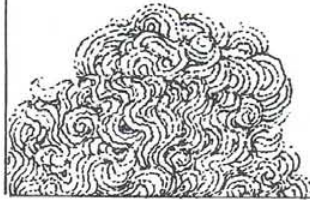
도라 디 프랙크

엄마는 뜨거운 빵을 흰 종이에 싸셨습니다. “앤아, 이 빵을 피치 자매님 집에 갖다 드려라.”

“마사네 집에 이걸 갖다 주기가 쑥스러워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사는 친구가 필요해요, 마사는 친구가 없는 것 같던데.”

“이걸 모두 다 갖다 주라구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말이에요.”





“애야, 피치 자매님이 매우 편찮으시단다. 마사는 아직 빵을 만들 줄 몰라. 마사에게 빵 굽는 법도 가르쳐 주어야 해” 하시며 엄마는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가족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단다……”

“엄마, 마사 엄마 병환이 쉽게 낫지 않으실거란 말이죠?” 하며 매리 앤이 물었습니다.

“걱정이 된단다. 마사도 그걸 아는 모양이야. 그래서 마사가 말이 없이 침울한거야. 빨리 갖다 주고 늦기 전에 돌아오너라.”

매리 앤은 심부름을 나섰습니다.

빵의 더운 김과 향내가 배고픔을 느끼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조금씩 절약해서 남을 돕는 건 좋은 일이야. 엄마는 내가 돕지 않으면 상호부조회 회장 일을 잘 할 수 없을꺼야” 하며 앤은 생각했습니다.

울타리 위에 앉은 종달새의 노래 소리가 매리 앤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냇가의 나무 빛깔이 봄이 움을 알려 주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므로 교회에 새 옷을 입고 간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매리는 마사의 얼굴이 떠올랐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마사가 문을 열었을 때 매리는 그녀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빵을 갖다 주래” 하며 매리는 식탁 위에 빵을 내려 놓았습니다.

마사는 아로마 향이 든 빵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네 엄마는 우리가 필요한 걸 언제든지 알고 계시나봐” 하며 고맙다는 뜻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오면 빵 굽는 법을 가르쳐 주신대” 하며 매리 앤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 매리는 “또 먹고 싶은 건 없니? 있으면 말해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감자와 양파로 국을 만드는 걸 가르쳐 주셨어.” 하며 마사는 손을 비볐습니다. “난 아직 요리를 할 수 없어, 지금 배우는 중이거든.”

침실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마사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부르셔, 네 엄마에게 고맙다고 전해 줘.”

매리 앤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음날 엄마는 분홍색 부활절 드레스를 만들어 주셨고, 매리는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동생들이 난로가에서 숙제를 하려고 모였을 때 매리 앤은 엄마가 드레스에 마지막 손질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자 한번 입어보겠니” 하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매리는 보던 책을 놓고 엄마가 일하시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피치 형제님이세요. 엄마를 뵙고 싶으시래요.” 하며 리자 언니가 외쳤습니다.

매리 앤이 거울을 들여다 보고 있는 동안 엄마는 밖으로 달려 나가셨습니다. 보드럽고 흰 레이스에 분홍빛 리본이 허리에 달린 드레스를 매리는 입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매리는 한 손으로는 앞치마 끈을 풀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애야, 옷을 벗거라. 피치 자매님이 몹시 아프시래. 피치 형제님과 같이 갈텐데 오늘 밤에 집에 못 돌아올지도 모르겠구나.” 엄마는 목도리를 두르시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다음날 리자 언니가 식사 준비를 했고, 아빠도 우리가 학교 갈 준비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엄마는 피치 자매님택에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마사가 학교를 결석해서 매리는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 다섯 딸이 집에 돌아 왔습니다. 엄마는 재봉틀을 앞에 놓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치킨 스튜”에 든 아로마 향내가 방안 에 가득했습니다. 점심엔 “닭과 국수다”하며 기뻐 소리쳤습니다.

“매리아, 옷을 입어 보겠니. 잘 맞나 보자!”하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못 만들까봐 걱정했단다.” 하시며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피치 자매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단다. 수의를 지어야해요.”

“어머나! 그래서 마사가 결석했군요”하며 매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도와야 해.” 하시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리자는 국수를 넣고 저어라. 닭고기와 국수를 피치네 집에 갖다 주어야겠어. 오늘밤 엄마가 수의를 만들 때 매리는 네 옷에 레이스를 마저 달도록 해라. 장례식은 금요일이야.”

딸들은 엄마가 벌써 많이 우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매리는 부활절 드레스에 조심스럽게 레이스를 달았습니다. 마루에는 흰 천이 놓였습니다. 가위질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 다. 매리와 엄마를 빼고는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매리아, 내일 모레가 장례식 이란다. 마사에게 흰색옷 한 벌 밖에 없어. 시간도 있고 천도 있으니 마사 옷을 새로 지어야겠구나.”

매리는 잠시 자기 옷을 꼭 끌어 안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기 전부터 매리는 마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매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마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제 분홍색 드레스를 마사에게 주어도 괜찮겠지요. 난 흰색 옷에 레이스를 달아 입겠어요.”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맴돌았 습니다. “정말 좋겠구나, 참 좋은 생각이다.”

매리 앤은 조용히 분홍색 부활절 드레스에 레이스를 달면서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금요일 장례 행렬을 따라 가는 마사를 바라보며 매리는 엄마에게 “마사가 참 아름답지요”라고 속삭여 물었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분홍빛 옷이 슬픔에 지친 마사의 얼굴에 밝은 빛을 더해 주었습니다. 마사의 검은 머리는 묵뫼로 단정하게 내려 빗겨져 있었습니다. 마사는 매리 앤을 보고 슬픔 중에서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매리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마사가 누가 옷을 해 주었는지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전 옷이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





부활절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나셨다가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

나님 아버지께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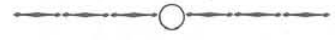
구세주가 다시 사셨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일임을 증거하는 대관장단 제2보좌 매리온 지 롬니 장로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권능을 가진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인류의 축복과 구원을 위한 위대한 프로그램을 내려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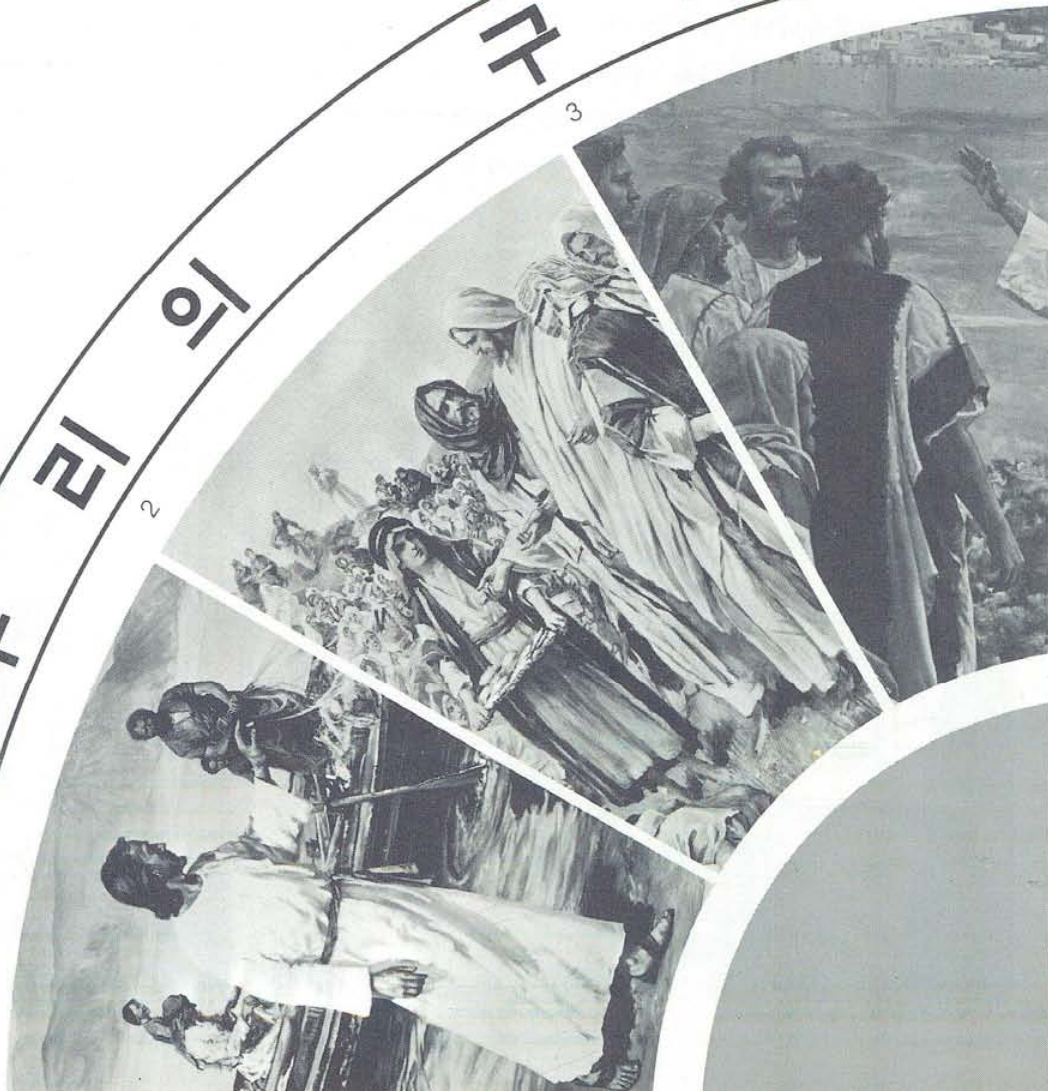
우리는 교훈과 모범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도록 권고해야 합

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에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절름발이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장님에게는 눈을 뜨게 하였고, 악령을 몰아내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였고,

아 리 의 구 속 주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4천과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간증을 얻는 방법에 관해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자들도 그의 가르침에 놀라 이렇

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5~1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다. 어느 누구도 왕국의 발전을 막지 못합니다. 모로나이는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되느니라.” (골 8:22)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과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업적에 비한다면 대양의 물방울과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





제프는 콜럼비아에서 선교사로 있는 형과 같이 자기도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자신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하고 늘 망설였습니다.

지난 주일 초등학교 회장은 모든 어린이가 선교사가 되어 친구를 초등학교에 데리고 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훌륭한 초등학교를 갖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를 다른 어린이들과 같이 함께 갖는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라고 어린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회장님은 어린이들에게 다음 주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프는 손을 들었습니다. 왜 손을 들었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학교 친구에게 교회에 관해 말할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제프와 지미 둘만이 학교에서 물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등학교 불꽃반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교사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제프는 자기가 손을 든 것도 선생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가 오더라도 교사님과 교사님이 가르치시는 공과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프는 성찬식에서 두 명의 복음 선교사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느낀 훌륭한 느낌에 관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프도 그런 느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줍어서 어떻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제프는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식탁보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물감은 빠지지 않아요?”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 물감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단다.”

“멋있는데요, 엄마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나요?”하고 제프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릴 수 있지”하고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프는 흥미가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 노랑색 티셔츠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보려느냐.”

제프는 즉시 셔츠를 찾아 들고 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주름을 폈습니다. 그런 다음 검정색 붓으로 둥근 큰 눈과 웃는 입을 가진 큰 얼굴을 그렸습니다. 얼굴 아래에는 “재미있는 초등학교”라고 썼습니다. 물감이 마르자 제프는 다시 등에다 초등학교에 관



해 알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빨리 그 셔츠를 입고 학교엘 가고 싶었습니다. 다음날은 학교에 체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프는 이 셔츠를 입고 학교로 갔습니다. 옷장 앞에 갔을 때는 벌써 몇명이 와 있었습니다. 제프가 자켓을 벗자 벌써 한 친구가 제프의 셔츠를 보았습니다. “제프야, 그게 뭐니? 읽어 보자!”하고 앤이가 말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서서 제프는 남들이 흉을 보던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앤이가 셔츠에 쓴 글씨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초등협회가 뭐니?”하고 물었습니다.

제프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잘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 초등협회란 말야...” 제프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때 친구인 그렉이 물었습니다. “제프야, 소년단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지 며칠 전에 네가 재미있는 걸 얘기했잖니?”

“뭐, 소년단?”하고 앤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소년단이었는데, 나도 소년단이 되기를 바라신단다. 제프야, 나도 초등협회에 나갈 수 있니? 누구나 갈 수 있니?”

제프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렉이 말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 방과 후엔 할 일이 없어. 엄마와 아빠가 직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난 혼자 있어.”

제프는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목청이 되살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누구나 갈 수 있어. 많이 갈수록 좋아. 화요일날 가는데 소년단 말고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우리 선생님은 참 좋아.”

종이 울려 모두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제프 옆

엔 초등협회 친구인 지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프가 자리에 앉자 지미는 제프의 셔츠를 보고 “그걸 입고 다니니 기분이 어때?”하고 물었습니다.

제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어!” 휴식 시간에 제프는 지미에게 앤디와 그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미도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셔츠를 입고 학교에 간다면 많은 친구들이 울꺼야. 초등협회가 꼭 찰꺼야”하고 소리쳤습니다.

수줍던 소년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던 된다고 제프는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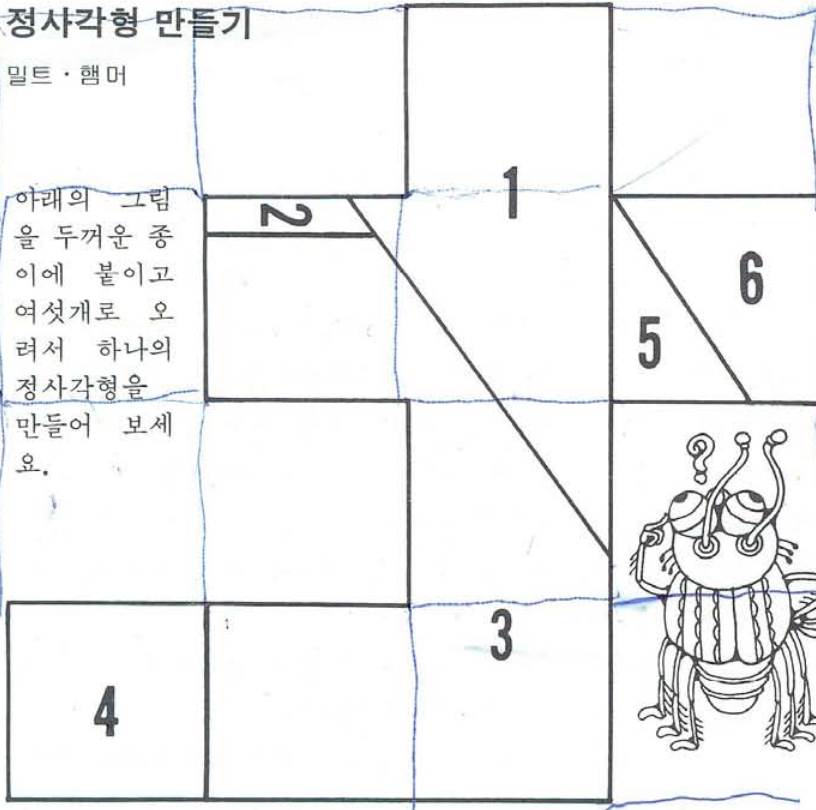
제프는 이미 선교사들이 느꼈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티셔츠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겠지요. *



정사각형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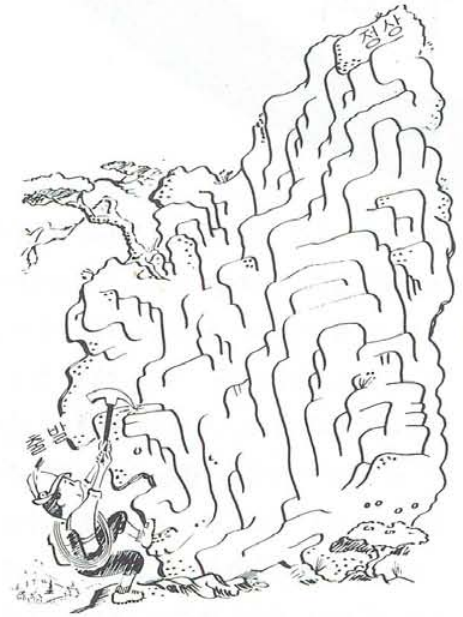
밀트 · 햄머

아래의 그림을 두꺼운 줄이에 붙이고 여섯개로 올려서 하나의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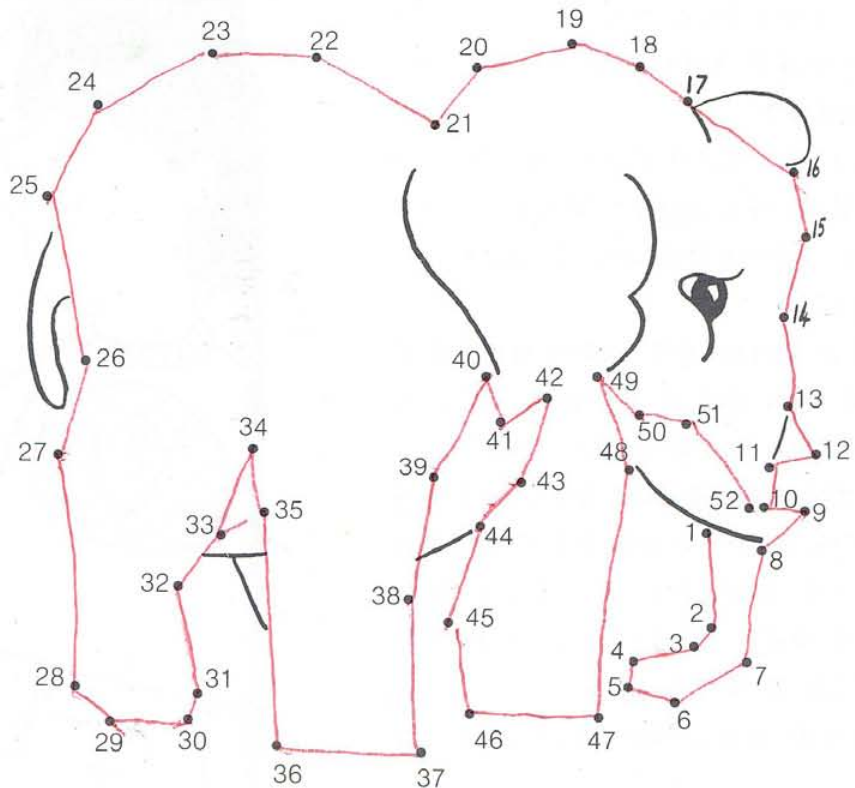


등산

로버타 웨어올



심심 풀이



해답:
정사각형 만들기



“하나님의 사랑의 맛”

에어만 브락크

내가 처음으로 남편 버트 브락크를 만났을 때인 1930년 초에는 그가 이미 그토록 갈구하던 종교를 찾은 때였습니다. 그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라는 성경의 권고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 응답이 온 것입니다.

버트의 어머니는 그가 아홉 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종교를 부정하던 무신론자 아버지는 집에 찾아온 목사를 총으로 쏘아 죽이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종교나 도덕에 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음주, 흡연, 욕설로 일관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버트는 나이가 들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겠다는 소망을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는 것이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그는 어린 요셉 스미스처럼 진리를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문 문을 꿰고 기도를 드릴 때 그는 “마음속에 평온이 깃들었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본체 속으로 스며들음을 느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이러한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발이 땅에 닿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신 사랑이 나를 감싸 혼란한 느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이 순간부터 그들에 대한 큰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를 싫어 했었습니다. 이제 비에 흠뻑 젖어 비맞는 순간들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의 왕국을 채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라면 그곳에는 양과 사자가 함께 누울 수 있고 해하거나 두려워 할 것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사흘 후에 이러한 느낌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느끼며 그는 하나님께 다시 그러한 느낌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실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느껴 이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진실된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간절한 간구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를 행하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리와 조화시키겠다고 결심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생활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담배, 술을 끊었고 다른 약점도 극복하였습니다.

그런 사실로 보아도 하나님은 그가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는 코오란, 불경, 공자, 기타 여러 철인의 저서를 읽었습니다. 도서관의 종교 서가가 그의 지정 책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목사 한 분이 나에게 세례를 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는 그에게 이상한 대답을 했지요. 나는 그가 권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나를 세례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쯤 되었을 때 버트는 워싱턴 레이몬드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많은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는 목사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길을 가다가 만났다면 우리 인간들처럼 이야기를 하실까요? 키는 얼마나 될까요?”

그는 만족스런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떠한 형태가 없으신 상태로 우주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누님댁에서 “참빛”이라는 소책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고 누님에게 어디서 그 책을 얻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간 사막을 헤매어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누가 시원한 냉수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의 느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리에 목이 타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리가 전달된 것입니다. 난 더 많은 진리를 원했습니다.”

버트의 누님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부장을 한다는 치과 의사가 그 책을 주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물론”이라고도 부르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곧 버트는 몇권의 소책자와 물론경을 받고 교회에 참석해 달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남편인 버트 브락크를 만난 것은 치과 병원에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질문은 회원들에게 열심히 경전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한 말씀이 그의 귀를 울려 주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 계시며,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견고 대화하고 얼굴을 마주 보며 전에 느꼈던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랜 탐구 끝에 그는 침례를 베풀 권능이 있는 교회를 찾아 내었고, 어느 추운 가을날 윌라파강에서 침수로써 침례를 받고 강한 간증을 키워갔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은사와 유산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해리 앤더슨 그림

우리 주변에서는 남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함으로써 기념할만한 특별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사를 생각해 보고, 그 대가로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언제나 가치있는 일입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

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구속과 부활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심신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교성 19:15~19 참조)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겠다고 마음 먹기는 쉬우나 믿음을 위해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길을 따르고, 그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사셨던 그러한 삶 곧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지를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니삼 27:27 참조)

가장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에 따라 생활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부나 권세나 명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함, 복됨, 행복이란 우리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생활을 하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의로운 길이요, 충만한 진리요, 풍요로운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이끌어 줄 질문은 “주님 제가 어찌하오리이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행해야 할 일이 많으며,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대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나 다른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이외에도 예언자를 은사로 주셨읍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도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요 계시자요 선견자인 대관장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분은 생수의 근원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갖는 관계는 하나님의 지상의 대표자이신 예언자 곧 대관장의 영적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실천하느냐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대관장의 영적인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자신의 특정한 일에 대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이 세상에 주님의 대변자는 단 한 분이시니, 그가 교회의 대관장입니다. 그분의 영적인 말씀에 미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언자는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교회를 그릇 인도하게 두시지는 않습니다. (월포드 우드럼 설교집, 212~13 참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 되거나, 우연히 그 자리에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이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분입니다.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았읍니다. 어느 세대이든 교회의 경전과 그 외에 살아 계신 예언자로부터 나온 현대의 경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대변자로부터 나온 최근



의 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정기 간행물에 실린 그분의 말씀을 주의깊게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말일에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째,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사와 예언자 이외에도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30)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주신 은사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나 승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침례, 신권, 해의 왕국의 결혼, 기타 인봉 권세를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계획하시고 확장시켜 가기 위해 만드신 조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 교회를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기꺼이 바쳐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크게 성장해 나갈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가 배도로 인해 지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개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회 회원 전체를 가리켜 “나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교성 1:30 참조) 이것은 교회의 일부 회원은 배도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영향력과 권능이 있는 직책에 있는 회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임을 알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랐던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다음의 원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적인 진보의 정도가 각기 다른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에게 슬픈 경험을 주어 이로부터 교훈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의 원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들도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 8:7) 주님께서서는 백성들이 왕을 갖게 될 때 울 결과에 대해 경고하라고 사무엘에게 이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왕을 갖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원치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나쁜 경험이란 어리석은 자들이 드나드는 값진 학교와 같습니다. (삼상 8장 참조)

때 때로 우리는 예언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세상을 흥내 내어 거짓된 교육, 정치, 음악, 복장에 관한 이념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세상의 표준이 등장하여 힘을 과시하

게 되면 점차 질서가 파괴되고 마침내 사람들은 큰 고통을 치루게 되나 겸손한 자들은 또 다시 높은 율법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표준이 점차로 파괴되어 가는 중에도 의로운 백성은 반드시 오고야말 보다 나은 날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지닌 최고의 개인적인 표준을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추종자가 있다는 원리를 생각나게 해 줍니다. 좋은 표준이 있으면 이를 실천할 좋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몬군은 나뭇가지를 치는 것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열매가 자랄 때에 그 좋은 열매의 기력과 크기를 보아, 못된 열매를 맺는 가지를 치되, 나쁜 가지라하여 한번에 전부 자르지는 말라. 뿌리의 기력이 접붙여진 가지보다 훨씬 성하면 나무가 말라 죽으리니……”

“……좋은 가지가 자라도록 살피어 나쁜 것을 자르고, 뿌리와 줄기의 기력이 동등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기를 좋은 것이 나쁜 가지를 이겨낼 때까지 할지니……”(야 5:65~66)

시온의 백성만이 시온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시온 백성의 수가 늘매 우리는 백성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까지 보다 많은 시온의 원리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때가 이르면 교회의 영감받은 사람이 쓴 책의 수가 증가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거짓 가르침을 다룬 책을 읽는 수가 줄게 될 것입니다. 매사에 있어서 복음 진리가 기초가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상에서 그러한 복음의 표준이 미치지 못한 곳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줄 때가 이를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이 크게 증가될 것이나 이것은 인간의 가르침이 줄어들 때에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할 만하고, 사랑스러우며, 유덕하고, 듣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베에토벤, 세익스피어, 렐브란트, 미켈란젤로를 흠모합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는 많은 위대한 인물 즉 위대한 가장 곧 축복사, 고귀한 동반자, 어머니를 마음속에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던 음악, 감상하던 미술품, 즐겨 입던 옷이 사라질 것인데, 이는 그 유행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표준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회 회원의 개인적인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거슬릴 때는 다음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청기지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왕국이 커짐에 따라 책임이 위임되어 청지기 직분이 주어집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여러 가지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통 인간에게 하나님의 면전까지 이를 수 있는 긴 밤 줄과 충분한 시간을 주시나 중도에서 이를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용성이 많으시나 미약한 인간이 그들의 팔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게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뜻게 나타나지만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선한 사람이건

악한 자이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왕국을 파괴하려고 왕국 안에서 그들의 추종자들을 모읍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도 그러한 자가 있으며, 정당한 경로를 통해 그 숫자가 밝혀질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것이 밝혀져 선이 드러나고 악은 없어질 것입니다. 왕국에서 우리의 눈을 거슬리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해당되는 일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일이 높은 신권을 지닌 교회 역원에게 알려져야 할 일이면, 친절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적절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와 개인이 갖는 의견의 충돌을 남에게 말하거나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는 배도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왕국에 머물며 어떠한 자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위대한 은사를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참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십시오.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지도자를 지지하십시오. 부름을 받아들이십시오. 신전 추천서를 받고 축복을 누리십시오.

네째, 그리스도의 생애 그의 예언자, 그의 교회 이외에도 경전의 은사 특히 물몬경의 은사가 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께서 워싱턴 신전 헌납 기도에서 물몬경에 관해 언급하시면서 예언자 요셉이 말한 것처럼 가장 정확한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물몬경이 우리 믿음의 종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다른 어느 책보다도 이 책의 가르침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교회사, 4:461)고 하셨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시대에 써어졌습니다. 이 책을 편집한 물몬은 시현을 통해 우리를 보았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느끼신 바를 책에 넣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에서 물몬경을 필수 종교 과목으로 삼은 것은 영감을 받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학의 교수나 학생 그리고 교회 회원은 다른 어느 책보다도 물몬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책에 어떠한 역사와 신앙을 증진시키는 이야기가 들어 있나를 아는 것은 물론 그것이 주교자 하는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물몬경을 이론적으로 연구했다면 사회학, 인류학, 진화론 등 오늘날 인간의 거짓된 이론과 철학과 싸울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몬경을 알고 사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분별력과 통찰력, 확신, 영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아 왔습니다. 그 책은 커다란 채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그의 예언자, 그의 교회, 물몬경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축복해 주는 그리스도의 작은 은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에게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위대한 은사는 생명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현재와 앞으로 그에게 우리의 생명과 희생을 바쳐야하지 않겠습니까? 몇해 전에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설정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는 주님께서도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가서 '나는 중립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저를 원하시는 대로 써 주십시오. 언제라도 불러 주십시오. 마음대로 써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으니 무엇이든 원하시면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나에게 커다란 용기와 힘이 솟아오름을 느꼈습니다."(신학 연구원 대회, 1970년 여름)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은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을 생전에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되며,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고, 마음이 정결케되고, 힘을 얻게 되며, 영혼을 교양시키고, 축복을 더하며, 영혼을 위로하고, 친구를 얻게 되고, 화평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희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이란 복음을 시험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왕국의 것을 첫째로 여기는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 6:33 참조)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복음의 대업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좃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



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 : 16~29, 교성 132 : 55 참조)

요셉 스미스는 희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즉 명성, 영예, 성품, 집, 토지, 형제, 자매, 아내, 자녀,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믿음이나 가정 이상의 무엇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통이 끝날 때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종교란 영생과 구원에 필요한 신앙을 낳아 주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인간이 존재한 태초부터 영생과 구원에 필요한 신앙이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마련해 놓으신 과정이 희생인 것이다.”(신앙 강화, 58~60 페이지)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이란 지상 생활에 국한된 개념이다. 영원한 의미에서의 희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희생이란 보다 나은 세상에서 얻을 축복을 약속받고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을 바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교성 93 : 13~15, 불문 교리, 북크래프트사, 1966년, 664페이지 참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다시 찾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을 수 없으니,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축복이 더디 와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지만 결국은 후한 축복이 찾아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힘쓰라. 그러면 필경 기쁨이 있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즐겨 당했으며, 나는 교회 회원 앞에서 그것이 마치 다 낡아 떨어진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새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주려고 찾아온 사람과 비유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떤 괴로움을 당했나를 생각할 때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낡고 더러운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8페이지)

성도들은 죄인들처럼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브리감 영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신에 투철한 자에게는 시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의 복음대로 생활하다 일면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련과 슬픔을 계속 맛보게 됩니다.

“원수의 멍에를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쓸 때,

그의 멍에는 힘들지 않고 짐이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경험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8페이지)

여러분은 의로운 어머니가 왜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생의 대상을 소중한 생각하며,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남이 아닌 자신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켜 버릴 수 없습니까?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가 된 자기 남동생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병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감독을 찾았고, 마지막 순간에 일로써 거칠어진 손으로 감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 걸 하나님은 어떻게 아실까요?” 감독은 그녀의 팔을 위로 올리면서 “이 손을 하나님께 보이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한 그와 같은 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까? 그 손에는 주님을 위해 봉사했다는 표시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며 그의 생각으로 가득차 있습니까?

매주 우리는 그와 같이 되고, 그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며, 메사에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되풀이합니다. 대신 그분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우리의 만형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지상 생활의 기회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악의 힘이 크게 떨치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장막을 통해서 이곳에 왔지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증거해 보이며 자신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의 얼굴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었는가를 알고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영 대관장은 왜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그처럼 어리석었나 하고 의아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복리를 위해 해 주시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 우리의 승리를 갈망하며 우리를 밀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생명과 희생을 매일, 매시간, 매분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있나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칠 때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이 가장 아끼시는 것을 여러분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데오이 맥킨

우리는 대개 한두 번씩은 남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권 정원회 모임이나 주일학교 상호부조회에서는 배우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관련하여 마련된 본 시리즈의 첫 장에서 데오 맥킨 형제는 교사와 학생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삼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농장에서 내가 맡았던 책임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것이었다. 추운 겨울 동안 양의 생사는 여름에 저장해 둔 건초와 곡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나의 손에 달렸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양에게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가두었던 우리를 활짝 열어 스스로가 마음대로 싱싱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봄에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때는 우리 속에 갇혀 서로 다투어가며 먹이를 받아 먹는 대신 산 언덕을 마음대로 배회하며 자연 그대로의 싱싱한 풀을 맘껏 포식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가을까지는 모두 살이 찌고 건강해진다.

후에 나는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이와 비슷한 임무를 띠고 선교지로 떠난 적이 있다. 거기서 나는 다시 겨울이 지났고,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새로운 진리가 땅에서 샘솟아오르며, 선한 목자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나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구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이끌어 그들 스스로가 성령의 권세를 통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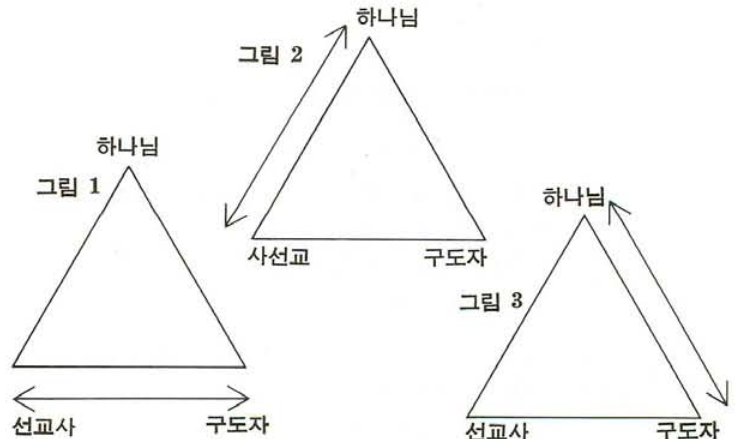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양을 먹이는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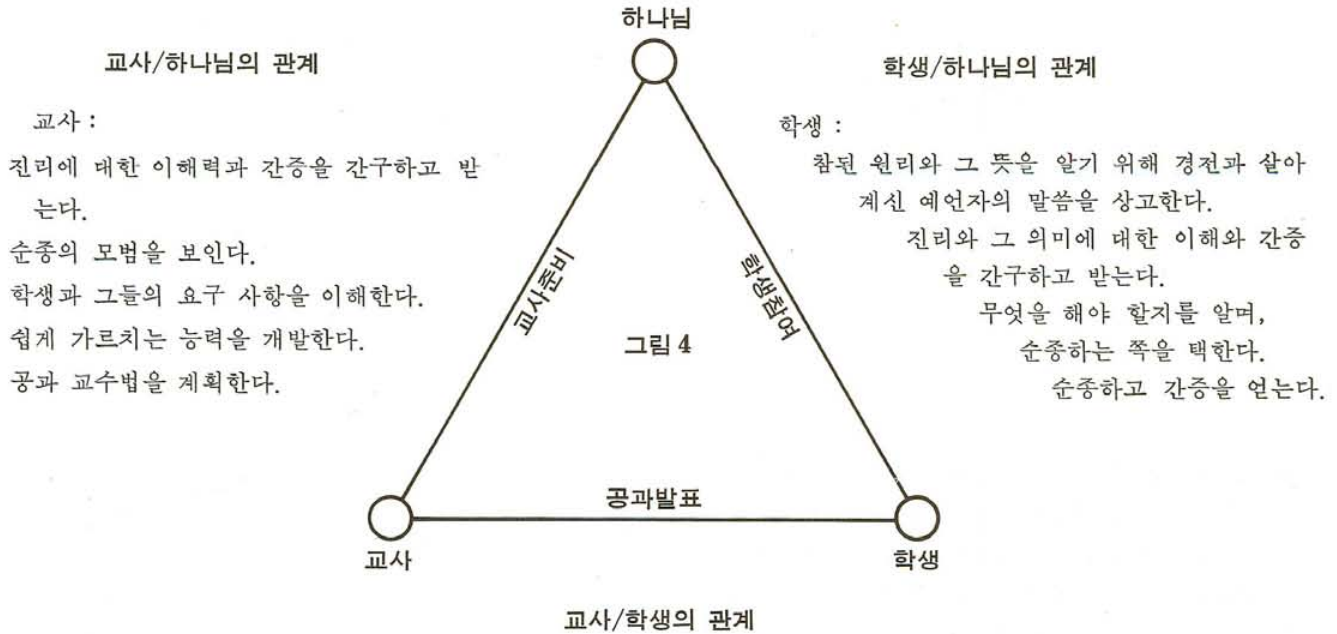
같다.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 배우는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와 하나님의 영의 절실한 인도가 요구된다. 이상 삼 자의 참여는 선교 사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선교사가 구도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림1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전달된 메시지는 아래의 그림2에서 보듯이 선교사가 개인적인 공부와 기도와 교회 신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선교사의 메시지에 간증의 힘이 곁들여지면 구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데, 구도자가 아래의 그림3에서와 같이 하나님이나 경전, 교회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될 때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간증을 갖게 된다.

선교사의 말만을 듣고 개종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구도자에게는 하나님과 그가 갖는 이러한 관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령의 권세를 통해서 오는 이해력이나 증거 없이는 대개의 경우 언젠가는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만다.





이것은 선교지에서나 교실에서나 가정에서 모두 마찬가지이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반 교사인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반원을 복음 안으로 개종시키려면 선교사가 임지에서 하듯 간증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마크 이 피터슨, 1970년 8월 인스트럭터지).

선교사를 교사로, 구도자를 학생으로 바꾸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기본 관계를 나타내 주는 위의 그림4의 도표를 그릴 수 있다.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선교사가 복음을 가르치는 기본 패턴을 가정과 교회 공과 시간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리와 성약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사와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1831년 5월에 계시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선교사에게는 물론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여러분에게도 적

용된다고 생각합니다……다음의 질문과 대답을 들어 보십시오.

“그런고로 나 주는 너희에게 이를 묻노니, 곧 너희는 어떠한 성직에 성임되었더냐?”

“성령 곧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하는 직책에 성임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고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0 : 13, 14, 22) (고든 비힝클리 장로, “너희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브리검 영 대학 교수단 모임에서 행한 말씀, 1963년 9월 17일)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들을 “푸른 초장” 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교사나 학생이 모두 “내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가(시편 시편 23 참조) (이 씨리즈의 다음 기사에서는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가르침과 배움의 여러 가지 관계를 다루게 된다.)

간증의 힘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증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사나 반지도자로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각 교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특정 과업에 관한 한 전체 조직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공과 교실이나 연단은 “공적인 토론”의 장소가 아니며 그곳은 또한 교사 개인의 생각이나 해석 등을 전하는 “공명판”이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의 공과 교실이나 연단은 복음을 배우는 중심지이다. 그곳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증되고 감동을 받는 곳이다.

로마 성도에게 보낸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 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로마서 10:13~15)

공과 교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르침과 더 나아가서 개증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복음은 그 의미와 적용 범위가 넓고 무한한 지식을 제공해 주므로 복음에 대해 다 배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모두가 이를 배워야 한다.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잘 준비된 공과에서만 찾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의의 씨앗을 갈구하는 사람들이다. 교사는 갖가지 공론을 떠나 정통적이고 진리에 찬 공과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채워 줄 책임이 있다.

훌륭한 교사는 말 이외에도 필요할 때 시청각 보조 자료를 사용한다. 성구 참조는 공과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과에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야 하며,

공과 시간에 경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때 그러한 진실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교사가 반원들에게 완전 개증을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것은 간증이다.

새로운 개증자에게 교회를 소개했을 때 가장 감명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선교사가 들려준 진지하고 열렬한 간증이었다고 대답한다.

교사인 우리는 동시에 선교사이기도 하다. 반원을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로 완전 개증시키기 위해서는 선교사와 같이 간증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가르치고...간증하고...침례준다!”
이것은 선교사가 걷는 과정이다. 공과를 가르치는 우리도 이 방법을 따라야 한다.

오늘날 “아이—투—아이” 교수법에 관해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교수법이다. 그러나 헌신적인 교사로부터 반원에게 주어지는 “아이—투—아이” 간증이 없다면 그러한 교수법도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교사가 진지한 자세로 “나는 여러분께 이것의 진실됨을 간증드립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보다 공과가 효과적으로 확신을 갖고 전달되는 때는 없다.

이 방법으로 전 세계의 비회원을 개증시키고 있다. 이것은 공과에 참석하는 비회원을 개증시키고, 비활동 회원을 개심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진지한 간증에는 놀라운 힘이 따른다. 주님께서는 간증을 통해 놀라운 그의 영을 부어 주신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세상 어느 곳에서, 혹은 가정에서 가족에게, 교실에서 반원에게 간증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그 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간증없이 가르치는 공과가 마음을 울려 줄 수 있을까?

우리의 가슴 속에 간증이 타오르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를 증거할 때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켜 주게 되며, 개심이 따르게 된다. 개심이 있으면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오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간증이다! *

